

아, 우유



한 경 희
죽전고등학교 교장

필자인 죽전고등학교 한경희 교장은 오랜 교직기간 동안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남다른 소신과 의지를 갖고 아침 8시 40분 일괄 전교생 우유마시기 지도를 해온 교육인으로, 월간농육우 2006년 8월호 기획특집 코너를 통해 그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죽전고교장으로 부임한 한경희 교장은 부임초기부터 본래 우유급식이 전무했던 상황을 개선코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일

외국에 여행할 일이 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일은 고역이다. 식성이 소탈 하더라도 현지식이라는 외국의 고유음식이 며칠 지나고 나면 식사시간이 영 반갑지 않다. 그 때 사람들의 여행에 힘을 주는 게 바로 호텔식이다. 이 호텔식은 어느 나라든 대개 공통적인 것이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거나 우유가 반드시 있다. 필자는 비교적 그 현지식에 잘 적응하는 편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지난 여름 여행에서 필자의 일행은 음식이 맞지 않아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였다. 그 때 우리의 여행을 끝까지 무사히 마치게 한 음식은 바로 요구르트와 우유였다. 요구르트에 현지의 과일을 이것저것 섞어 먹

고, 특히 뜨거운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 마치 우리나라의 곰탕이나 설렁탕에 밥을 말아 먹듯 했다. 일행은 모두 '아~ 바로 이 맛이야!' 라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힘을 내어 나머지 일정을 즐겁게 마쳤다. 우유는 이제 유제품이라기보다 만국 공통의 식사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든 우유나 유제품이 없는 곳은 없지 않은가?

국제화 시대, 세계와의 교류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있을 일이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유에 익숙해지면 입맛이 다소 예민한 사람도 세계인으로 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을 예견하고 우유를 익숙하게 하는 지도를 해왔었다.

우유 급식으로 생긴 일

제목 : 우유 강제급식에 관한 시정요구

- ...는 우유 강제 급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최근에 귀청에 우유강제 급식을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우유강제급식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학교에서는 2년여 동안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강제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는 귀청에 이의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따라서 귀청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실태파악과 함께 우유강제급식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지난해 받았던 공문의 일부이다.

내가 재직했던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의 메뉴에 주 2회 우유를 급식에 넣어 제공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영양가에 비해 우유만큼 값싼 게 없다는 것과, 둘째, 국제화 시대에 세계를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살아갈 학생들에게 만국 공통의 음식인 우유를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교생이 먹는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먹을 우유를 장시간 보관

할 경우 혹 생길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염려와, 아침식사가 부실한 학생들에게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점심식사 메뉴의 우유를 아침에 먹였다. 급식 물품 계약시 우유는 8시 20분경 배달하게 하고 8시 30분부터 있는 아침 독서시간에 학급 담임교사의 임장(臨場) 지도하여 다 같이 마시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적은 급식비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며, 또한 일부 학생들이 장난으로 우유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다행히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교장의 이런 의도를 잘 따라 주어 무사히 시행하던 중, 아침시간에 주 2회 정도 '강제로' 마신 우유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시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요즘처럼 뭐든 넉넉한 풍요의 세대에게 아침에 먹는 우유는 학생들에게 어쩌면 '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이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아주 사소한 취향이나 체질도 존중해야 하므로 일제히 우유를 마시게 지도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릴 때 우유를 자주 접한 적이 없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





한 나는 가소성이 큰 청소년기에 조금씩 우유를 접하게 식습관과 체질을 개선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급식메뉴 안에 우유를 넣고, 주 2회 정도의 우유급식을 따로 신청을 받고 뭐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번거로워진다는 것과 우유이상의 경제적인 보조영양식이 없다는 생각, FTA다 뭐다 하며 경쟁력이 뒤지는 우리의 낙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괄 실시한 것이다. 우유를 마시기 싫어하는 장난꾸러기들이 우유폭탄으로 던져버리는 걸 막기 위해 선생님들은 바쁜 일과 중에 우유 마신 걸 확인까지 해야 하는 균일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하자는 나의 호소를 말없이 들어 주었다. 그래서 시행했던 우유마시기가 선생님들에게 커다란 균 일이 되고, 학생들에게 '불편한 강제'가 되어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 우유급식의 실시여부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되, 우유급식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을 포함

하여 일괄 제공하는 등의 강제적인 우유급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일괄 제공 금지'의 항목을 어긴 것이었다.

선생님들 중에 차제에 우유급식을 아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우유를 학교에서 먹고 싶다는 학생들에게 좀싼 값에 공급하는 것도 교육적이지 않은가로 설득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우유 신청을 받아 매일 공급하기로 하고, 우유값 고지서를 따로 발행하여 신청하고 알리는 일, 급식 메뉴에

우유를 제외하고 다시 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가며 그 일을 매듭지었고 보고도 하였다.

.... 오늘은 우유급식이 있는 날입니다.
 각 학급에서는 8시 35분까지 우유를 모두 가져가 마시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몇 년간 주 2회 정도 컴퓨터에 떠서 담임선생님들에게 우유급식지도를 알리는 이 메시지가 이제 없어졌다.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참 장난이 넘치는 학생들 중에 우유를 신청하지 않고 목이 마른 김에 마셔서 돈을 내고도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일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인의 자기주장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요즘의 학교에 그 일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안 계실까? 하물며 우유 먹이자고 고집부리던 학교장도 떠난 학교에서 우유급식 실시가 잘 될 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학교우유급식의 현실적인 어려움

올해 3월 본인은 중학교장에서 고등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업 이외의 다른 일을 더 실시하기에는 너무도 다급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부와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일은 급하다.

모든 학생이 8시 이전에 등교하여 '아침 자율학습', '정규 수업', '수준별 보충학습', '야간 자율학습'이 진행된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학원으로 독서실로 향할 버스와 승용차가 학교 앞을 시장터로 만든다. 파리해지고 햇빛 볼 시간 없기는 교사나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참 딱하다. 점심, 석식 두 번 학교에서 식사를 하나 우유급식은 하지 않고 있었다.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를 고려하여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 우유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마시게 시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정말 아득하다. 새로 온 관리자로서 전례를 무시하고 일을 만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쉽지는 않다. 우유급식 설명과 설득, 안내문 만들기, 스쿨뱅킹으로 입금해야 하는 일 등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홍보, 우유신청 받고 급식을 하도록 주관할 인적 자원 등, 모두가 새로 만들어야 할 '군일'이기 때문이다. 관리자니까 교사들에게 명령으로 내리기는 선생님들이 시급히

처리할 일이 너무도 많고 어렵다. '...시정조치하고 그간의 경위와 조치를 보고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괴롭히며 학생들의 떨떠름한 얼굴을 보면서 실시할 수 있겠는가?

난 혼자 묻는다. '강제급식으로 인한 불편과 문제제기 발생에 대한 불안'과 '익숙하지 않은 식습관을 보다 보편적인 식성지도를 위한 불편함'의 차이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 또 대체 '학교장의 자율'이란 건 어떤 정도의 수위인지..... 그러나 아무리 우유가 중요하고 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별도의 인적인 고려와 모두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막막하기만 하다.

휴일 오후 출가한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목이 마른지 아이는, "우유 주세요!" 하며 뛰어 들어온다. 이 아이는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우유를 찾는다. 냉장고에서 500ml 우유를 꺼내 주니 숨도 안 쉬고 다 마신다. 그럴 때면 '어릴 때 습관은 참 중요한데...' 라며 아이를 바라보게 된다. ☹

